

충북농협 '농축산물 꾸러미'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돕는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
1억여원 상당 꾸러미 2600박스 · 도시락 4500개 취약계층에 전달

충북농협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농축산물 꾸러미 2600박스와 도시락 4500개를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농협이 후원한 꾸러미와 도시락은 1억여원 어치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소외이웃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할

력을 찾고, 친체한 농축산물 소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자 농협이 오는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꾸러미 기부 사업과 함께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 활동도 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홈쇼핑 등 전국 2000여개 판매처에서 농축산물, 화훼류 등을 20% 할인 판매한다.
염기동 충북농협 본부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나눔사업

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유치원생의 건강 증진, 판로가 막힌 급식 농산물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 무상 급식비를 활용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은 5만원 상당, 유치원생은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로 구성됐다.
증평군과 진천군이 개학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공급을 시작했고 이달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농협은 20일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도지사,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물 꾸러미 2천600박스와 도시락 4천500개 등 총 1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충북서 학교 밖 '중학교 졸업' 학력 최초 인정

김병우 교육감 신예현 양에 졸업인정증명서 수여
자퇴 후 온라인 교육·봉사활동 등 통해 자격 갖춰

충북에서 처음으로 학교 밖 배움을 통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사례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 인정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 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을 제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도내 첫 학생이 신예현 양(16)이다.
신 양은 개인 사정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업을 중단했으나 봉사활동과 온라인 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았다.
신 양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도 가능해져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됐다.
현재 도내에는 28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 학습자로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신 양은 "학교를 나온 후 마음을 잡지 못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센터로 연계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날 신 양에게 졸업 인정 증명서를 전달했다.

돼 이런 제도를 안내받은 뒤 많은 도움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력 인정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3차 긴급지원사업 시행

예산 1억원 투입... 위생용품·생필품 구입해 소외계층에 전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제3차 코로나 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지원으로 실시되며, 총예산 1억원으로 충북도내 취약계층에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위생용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사업진행은 1, 2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군사회복지협의회(증평은 삼보사회복지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3차 사업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결식 우려 가정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때"라며 "표면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모금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1차 코로나 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으로 도내 취약계층 410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36개소를 지원 완료했으며, 제2차 사업은 취약계층 1,20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정기탁 사업으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우한교민 수용지역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전년 내 취약계층 739명에게 지역특산물(문백쌀 10kg)을 지원하기도 했다.

충북도 "우울증 치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

'충북형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실적 5천건 ↑ ... 사업비 3억6천만원 편성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자살 방지... 2019년~지난 3월 총 4070명 지원

충북도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치료를 통해 자살을 방지하려는 것이

다. 2019년 시도 단위에서 충북도가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70명이 지원을 받았다.
도는 최근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지원을 받은 상담 실적이 5,000건을 넘고 있어 향후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우울증 환자의 원활한 일상생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치료비 등 지원신청은 도내에 주소

를 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보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로 월 최대 2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혹시 평소와 다른 불안심리가 느껴지면 우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취약계층 1만3000명에 후원품 전달

충청북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LG생활건강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후원품 전달을 4월 17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11t 트럭 두 대 분량의 생필품을 도내 13,0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배분했다.
보람근로원에서 이루어진 후원물품 배분은 충북도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3곳 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으로 배분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복지관 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다시 찾기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기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누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제천시, 복지시설 확충사업 본격화

충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장 · 청소년수련관 착공 등

제천시가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지연됐던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일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장을 시작으로 이달 중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실내공사 착공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중앙시장 2층의 점포 50여 개

를 매입·임차해 643㎡ 규모로 조성했다.

이 시설은 실내놀이터, 교육실, 상담실, 수유실 등을 갖춰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제천을 위한 중심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용 문화시설

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동현동에 연면적 2천 221㎡ 지하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이달 착공해 총 1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업비 8억 원으로 비둘기아파트상가 일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오는 6월 말 개소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방치됐던 청전지하상가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중에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설계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새로운 공간으로 재

탄할 예정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나웨딩프라자를 매입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중 이전을 목표로 노인 여가 문화 활동 기능의 효율적 수행과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각 계층 누구나 가까운 지역 내에서 불편함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과정에 서 수요자인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시, 노인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원하는 병원서 최대 120만원

청주시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 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 받는다.

신청 방법은 수술할 병원의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수급자(자격)증명서 1부를 지참해서 관할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지원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릎 관절증은 적기에 치료하고 그에 따른 수술이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복잡한 민원 무료상담 해드려요”

군청 민원과 내 창구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음성군이 11일 공간정보산업협회 음성지회(지회장 이대준)와 복합민원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민원의 복잡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될 복합민원의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전문직사 요규되는 만큼 일반인이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다.

특히 복합민원 무료상담 서비스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민원과 내에 마련한 전용 상담창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군청 민원실에서는 매일 지적상담, 매주 화요일 국민연금(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매주 목요일 복합민원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불편 해소 및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병욱 음성 군수와 공간정보산업협회 이대준 지회장이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복합민원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 음성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 해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

했다. 무료상담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043-871-35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에 혜택”

우수기업 선정 ‘인증제’ 실시

진천군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노인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기업을 인증하게 된다. 인증 대상은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진천 소재 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인증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향

후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시장 판촉 및 해외마케팅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기타 심사기준으로는 급여 수준 및 직원 복리후생 근로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등도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분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9월까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충청북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경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1인당 최대 7만5천원... 개학 후 학교 통해 신청

충주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신입생에게 여가 문화 활동 기능의 효율적 수행과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각 계층 누구나 가까운 지역 내에서 불편함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과정에 서 수요자인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주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신입생에게 여가 문화 활동 기능의 효율적 수행과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각 계층 누구나 가까운 지역 내에서 불편함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과정에 서 수요자인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청 방법은 등교 개학일부터 3주간 집중 신청 기간을 두어 관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관외 학교 학생들과 전입생들은 충주시청 평생학습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염원하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이제 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 출산장려금도 증액

단양군이 출산·전입 장려 시책을 강화하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3일 단양군에 따르면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출산장려금 증액과 다자녀가구 지급 기준 변경이다.

군은 첫째 100만 원, 둘째 150

만 원, 셋째 200만 원을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130만 원, 둘째 180만 원, 셋째 2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은 또 이 조례에 한해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앞으로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세대가 단양으로 주소를 옮기면 30만 원의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을 받는다.

단양의 인구는 지난해 8월 처음 3만 명 선이 붐볐으며 이후에도 계속 줄고 있다.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만 9451명이다.

군은 인구 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입 학생 장학금(고교생 1명당 3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50만 원 이내),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50~300만 원), 전입 장려금(30만 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단양군 코로나19 시책 확인 ‘한눈에’

부서별 지원사항·업종별 용자금 지원 정리해 게재

단양군이 ‘코로나 19(이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 지원 시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목 받고 있다.

군은 각 부서별 코로나 관련 지원 시책들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군 홈페이지 내 팝업창으로 게시하며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 관련 다양한 지원시책들은 이해가 쉽도록 소상공인, 취약계층, 운수업체, 농업인 등 대상별로 구분했다.

3개월 간 20%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 외에도 업종별 용자금 지원 사업 등은 별도 정리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

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업체당 40만원), 소상공인 점포 폐업 지원(전용면적(평) 당 8만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생계지원금 일 2만 5000원),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지원(1일 상한액 6만 6000원) 등을 게시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인 가구 지원 4만원~5만 2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1인당 40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쿠폰 지원(1인당 5만 9000원 상품권 추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인당 연48만원), 미취업 청년구직활동비 지원(구직활동 지원금 30만원) 등도 담겼다.



단양군이 코로나19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책 홍보책자를 만들었다.

4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령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예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첨맛식품, 리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시라니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홈플러스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나나,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무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칸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에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청주새우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정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역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어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영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십일메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영,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떡, 서용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향떡방,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남(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중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숲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칸 중평점, 그린유통, GS25 중평대리점
- 과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잡곡,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과산점, 파리바게뜨과산점, 매키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천당토리타리점,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번영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우농, CJ나눔재단, 롯데

- 데일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가지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혁,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유통,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정과, 은혜정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시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일리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크리프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N푸드, 음성CJ, 음성(주)진천,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옥천군민 '도내 첫' 누구나 10만원 추가 지원

충북 최초... 정부 재난지원금 별개·생활 안정 도모 소득수준·나이 제한없이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코로나 여파 미집행·절감예산 이용 2회 추경확보 방침

옥천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생계위기에 직면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극복지원금을 도내 최초로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소득수준,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지난달 28일 김재중 군수를 비롯한 김의식 의장, 군의원, 관련 실과 소장들이 함께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김 군수는 "코로나 사태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국면과 달리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지역상권을 회복하고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군 자체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옥천군과 옥천군의회와의 협의 하에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지난 달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

의 지원방안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었다.

군은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2만 4013가구 5만 791명 정도로 1인당 10만원씩 모두 5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은 코로나 여파로 미집행 예산 및 절감 예산 등을 조정해 2회 추경에 확보할 방침이다.

군은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 기준을 지난달 27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으로 제한했다.

또한 내달 10일부터 발행예정인 카드형 옥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자금 투입으로 지역순환

영동군 '코로나19 극복' 세심한 보육정책 눈길

어린이집·부모·원아 불편 살피는 선진 보육서비스

영동군이 코로나19에 대응한 발 빠른 보육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심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전국 초·중·고교가 휴교,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갔지만 군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보육정책을 추진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 및 최상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역 16개소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갔으며, 방과후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9개소도 운영이 중단돼 돌봄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군은 지역 학부모들의 불

편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과 힘을 모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지역 아동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5~12세 대상으로 어린이용 마스크 3000매를 배부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등원하는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와 어린이집 위생 환경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미등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건강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3월초 관내 133개 기업체와 10개 유관기

관을 방문해 긴급하게 자녀를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며 가족돌봄휴가 분위기를 조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과 생업으로 인해 시간대기가 빠듯한 학부모들의 구매편의를 돕고 의출과 개학에 대비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면역력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집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깨끗한 위생관리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선진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코로나19 방역 대책 '전국 모범'

'일제방역의 날' 시행 방역사례 도내 전역으로 확대 범 군민적 방역문화 정착으로 청정 옥천 지켜내

옥천군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범 군민적 방역 문화 정착으로 청정 옥천을 지켜낸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시중 충북도지사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인 옥천군 자체 방역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

적인 방역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옥천군 사례를 표본으로 일제방역활동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옥천군 방역사례를 칭찬했다.

군은 지난 3월 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전 군민적 캠페인으로 시작한 '옥천군 일제방역의 날' 방역활동을 11회 진

행했다.

이 기간 동안 참여한 기관, 단체와 누적 참여 인원은 2천여명을 넘어섰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으로 전환 됐지만 최근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5일 옥천군 전역에서는 김재중 군수와 자원봉사센터 등 10여개 단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가해 '11차 일제방역의 날'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군은 이번 일제 방역에서 사회

적 거리두기 종료 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방역의 틈을 막기 위한 인파 몰리는 옥천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 집합시설과 시내 점포 등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벌였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김 군수는 "매주 금요일 방역활동이 진행될수록 참여 단체와 주민이 증가하였고 범 군민적인 방역문화로 자리 잡아 청정옥천을 지킨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역 전환이 곧 코로나의 종식이 아님을 모든 군민에게 주지하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실천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군 교육기관에 비접촉식 체온계 100개 전달

교육지원청·어린이집연합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만원

보은군은 지난달 24일 군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구입한 비접촉식 체온계 100개(1천만원 상당)를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과 관내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순옥)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체온계는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등 16개소로 배부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상혁 군수는 "오늘 전달식은 많은 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신 성



보은군은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구입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교육지원청과 어린이집연합회에 전달했다.

금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자 교육장은 "전달받은 물품은 등교 시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모니터링 세이브더칠드런, 종사자 교육 현실적 아동인권 향상 '앞장'

증평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 관련 NGO인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인권 관련 민간 기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현실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펴기 위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 류경희 굿네이버스 충북본부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증평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증평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두 단체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을 보장·지원한다.

굿네이버스 충북본부는 아동대상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권리 모

니터링 활동에 협력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는 아동 관련 종사자·성인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2021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을 받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증평군은 지난 2018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친화도(일대) 조사, 군민참여조사, 아동친화도시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 사회다.

홍 군수는 "각각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증평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모차 소독기로 코로나19 예방하세요!"

괴산군 보건소, 유아용품 살균 소독기 설치·운영

괴산군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1층 로비에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모차 소독 서비스는 면역기능이 약한 영아기에 유아용품을 통한 세균감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소독기는 부피가 큰 유모차와 카시트뿐만 아니라 아기 띠, 장난감, 쿠션과 장애인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품을 살균·소독할 수 있다.

특히,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각

종 세균을 제거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인 살균 시간도 채 2분이 걸리지 않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소독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모차 소독기가 코로나19로 불안감이 큰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유모차 소독기를 한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대효과’ 국민에 물어보니...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부양’ 67%

나우앤서베이 1380명 설문조사... 2위는 저소득층 지원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부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나우앤서베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만 30세 이상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380명: 남성 798명, 여성 582명)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신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부양(6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생계 지원(21%)’, ‘영세 사업자 및 일자리 보호(10%)’, ‘기부 문화 확산(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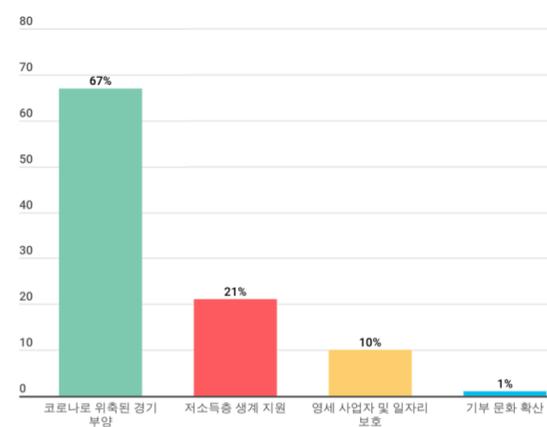
종, 위생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귀금속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 백화점 등의 업종이 ‘당연한 제한이다’라는 항목에서 5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불필요한 제한이다’ 및 ‘지나친 제한이다’라는 항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교통·통신료 등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이 상위 3개 업종(응답률 공히 30% 이상)으로 파악됐다.

‘역차별이다’라는 항목에서는 교통·통신료 등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대형마트 등이 상위 3개 업종(응답률 8% 이상)에 포함됐다.

‘다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해 ‘당연한 제한이다’라고 응답한 톱5 업종은 사행업종(86%), 위생업종(83%), 유흥업종(82%), 레저업종(74%), 면세점(7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신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이다’고 응답한 톱5 업종은 어린이집·유치원(43%), 교통·통신료 등(41%),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35%), 보험업(33%), 온라인 쇼

핑몰(3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만 30~60대 이상의 남자가 798명, 여자 582명, 총 138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4% 포인트다.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경제혁신 가속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설정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와 소프

트웨어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 계기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 조치로 추가됐는데 이 한시 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다음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모출산으로 유치원 결석해도 학비 지원

권익위 출산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엄마가 동생 출산해 유치원을 결석한 탓에 출석일수가 모자라도 앞으로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재학 중 배우자가 출산해 하거나 본인이 출산해 수업에 빠지더라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

지 않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어린이는 국공립의 경우 6만원, 사립은 24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다. 유아학비는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전액을 받는데,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규정

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각 대학이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은 공결 사유로 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무 고용 비율 높인다

일자리위원회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의결
중증 여성 장애인 1인당 장려금 월 60만→80만원 등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고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

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청소년 여러분 지역정책 만들기 참여하세요”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서 ‘청소년 참여 활동’ 시범 도입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역 정책 발굴과 결정 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의제를 발굴해 토론하며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모델’을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된다.

청소년이 정책 발굴에서 수립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민주주의 역량을 기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와 여가부 장

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참여포털’도 활성화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전국 지자체 9곳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 없이 지속해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청소년 학업 중단 시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준비부터 안정적인 생활 유지까지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의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 지정 등 만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기회 늘어난다

문화재청 ‘동행...’ 이달 가동
맞춤형 특수차량·통역 등 제공

노인, 보호시설 아동,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가 폭이 올해부터 넓어진다. 문화재청은 취약계층이 무료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행,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 여러분과 문화유산의 특별한 만남’을 표어로 진행하

는 ‘동행, 문화유산’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부혁신 역점과제다.

올해는 노인, 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등 4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애인에게는 이동 편의를 고려한 특수차량과 자원봉사자, 장애인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유산 해설(수화 등)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해설 통역을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과 대상자 모

집,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12개 민간 주관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캠프, 노인·보호아동 1박 2일 세계유산 탐방, 다문화가정 역사 문화유적 탐방, 가정보호 위탁아동과 노인이 참가하는 공평·성곽·유교유산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실태 조사를 병행해 문화유산 향유 현황과 주요 제약요건 등을 조사하고, 전국의 주요 문화유산을 선별해 무장애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10명 중 8명 “가족 치매걸리면 시설 맡기겠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도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연령 낮을수록 가사분담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 높아

충북도민 10명 중 8명은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시설에 맡길 생각이 있다고 조사됐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가족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조사 결과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구성원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모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가 주간보호센터나 장기요양시설 등 시설에 모신다고 답했다.

집에 모신다는 답변은 11.4%, 잘 모르겠다는 8.1%로 집계됐다.

노인부양 책임 주체를 묻는 항목에는 70.5%가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은 14.4%로 나타났다.

가사분담 주제 질문에는 지난해 64.9%보다 11.5%p 늘어난 76.4%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90.5%, 30대 80.5% 등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결혼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고, 45%(반드시 해야 한다 11.8%, 하는 것이 좋다 33.2%)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3.7%와 1.1%로 조사됐다.

이혼과 재혼, 결혼에 대해서도 57.2%와 76%, 67.9%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출산에 대해서는 56.9%(매우 그렇다 18.5%, 그렇다 38.4%)가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했다.

아이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 28.8%,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25.9%, 안정된 일자리 부족 15.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11.5%, 기타 10.1%,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함 7.9% 등 경제적인 이유가 적지 않았다.

입양에 대해서는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우면 적극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30.3%, 입양 생각이 없다 28.4%,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하고 싶다 26.6%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었다”며 “가족복지정책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민 271명을 상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48회 어버이날'을 맞아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항상 건강하세요”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온라인채널 스트리밍 생중계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종)는 8일, '제48회 어버이날'을 맞아 소외된 홀몸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노인돌봄지원관 주관으로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6곳 선정 참여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분리 및 분산되어 진행됐다.

기관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생활지원사가 직접 대방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생중계하여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했다.

원격행사의 취지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두더라도 화상 연결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어버이 공경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됐다.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충청북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기관 내 행사장을 마련하여 진행했다.

중앙행사의 식순에 따라 각 수행기관에서 동시 진행된 생생 어르신의 케이크 커팅, 카네이션 및

선물 전달, 미스터 트롯 참가가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이 날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생일을 맞이하여 행복한 마음이 그간의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행사참여로 뜻깊은 시간을 공유함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우종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규모 최소화로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제48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어르신들과 소외되고 취약한 홀몸어르신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건강을 빌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 주거복지지원사업 4000만원 후원

㈜우영스톤-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지속적 주거복지지원사업 앞장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주)우영스톤(대표 정현균)으로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주)우영스톤은 인조대리석·엔지니어스톤 전문 시공업체로 2014년 청주에 설립되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100억 매출 규모의 업체로, 일회성 나눔이 아닌

지속적인 주거복지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19년 (주)우영스톤으로부터 주거복지지원사업(해피하우스)으로 420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14가구를 대상으로 주방 대리석 싱크대와 식탁, 가스렌지를 교체해 주는 주방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도 저소득 10가구를 선정하여 주방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현재까지 (주)우영스톤으로부터 주방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주)우영스톤(대표 정현균)으로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4,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선사업 후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지원 및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해준 사업비는 1억여원에 달한다.

시·청각 장애인에 맞춤형 TV 무료 보급

6월 5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7월 보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TV를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 내

달 5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 1만 5천명의 소득 여부와 장애 정도

등을 기반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이들에게 7월부터 TV를 보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40인치 고해상도 영상(Full HD급) 스마트 TV를 보급하고 음성 안내 성별 선택, 수어 화면 위치 자동 탐색, 최

대 200% 수어 화면 비율 확대 등의 기능을 탑재한 TV를 보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외계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하거나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BOOK씨앗, 꿈나무'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에 도서 지원으로 효과 기대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들에게 도서 지원을 통해 독서교육 촉진 및 학습역량 증진

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BOOK씨앗, 꿈나무'를 갖는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

은 증가하는 추세로 다문화 자녀들의 특별한 언어적 환경에 따라 취학 전부터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센터가 운영하는 'BOOK씨앗, 꿈나무'는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령 단계에 따라 선정한 도서와 함께 가정에서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서 활용에 대한 안내문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BOOK씨앗, 꿈나무'를 통해 도서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3-643-0050, 0086)로 문의하면 된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교육생 모집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가능... 추후 웹시스템 '봄봄' 활용 가능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교육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하였고, 2015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인종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연계하여 대상자의 자살예방을 돕는 사람으로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동안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단체교육은 일시 및 장소 조율 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진행 후, 충북 생명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이 있고, 추후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충북 생명지킴이 활동 웹시스템 '봄봄'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와 활동캠페인 부스 및 심화교육 등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70-4948-9806)를 이용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순희, 이하 보조기기센터)는 충북도 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이 사업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점자 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를 보급한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될 경우,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90%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 지역의 관할 접수처는 각 시·군청이며 자세한 보조기기 지원 품목 정보, 제출 서류 등 신청 방법 안내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cba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가 진행되어 직접 적용하여 체험하고 상담 후 즉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65-0401) 또는 카카오톡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 실시간문의가 가능하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활에 필요한 복지, 한 권에 다 담았다!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코로나19 지원 · 청년일자리 · 출산과 육아 등 정보 총망라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 · 대상특성별 ·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 · 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 기초연금제도, 노후준비서비스 등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고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유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액: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빼 82만 4,760원 지급(연 단위 월별)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본인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근로능력평가, 회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자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자 아닌 가구

- 추가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추가)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산	도배, 장판 등	오금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추가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추가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4,000원	7만 2,000원	-	-
중학생	21만 2,000원	8만 3,000원	-	-
고등학생	33만 9,200원	8만 3,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용** 아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환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환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 조치가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아동수당 등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적 18만 237원, 지역 18만 5,031원)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가구
-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17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지원)
- 방법** 보건소에 신청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인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3(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한대여성아동병원)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9년 7월 부터 난임수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급여회수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령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금 50%)

※ 급여회수 확대: 신선배아 4회 → 7회(추가 3회는 본인부담금 50%)

동결배아 3회 → 5회(추가 2회는 본인부담금 50%)

인공수정 3회 → 5회(추가 2회는 본인부담금 50%)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완화적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근생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기 필요한 환자, 수면호흡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59p)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대태아 100만 원, 분만 유역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방법**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과 불평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 등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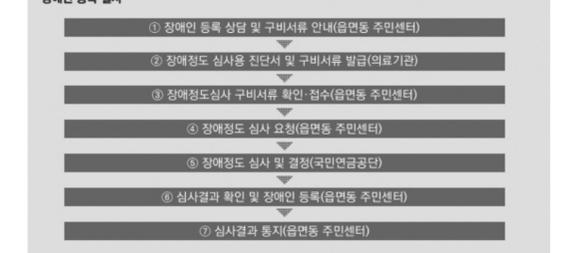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코로나19 정부지원 제도

일반국민 대상 생활·생계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긴급재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o)에서 대상확인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포카드 중 선택 *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신청시기)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연 270만 가구): 2020. 5. 4.(월)부터 신청 없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온라인 신청: 2020.5.11.(월) 신청 시작 → 5.13.(수)부터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2020.5.18.(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긴급재난지원금.kr 온라인신청 *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가능						
임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감염병으로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구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20.7.31까지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확대</td> <td>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고민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등</td> </tr> <tr> <td>재산·금융 기준 완화</td> <td>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확대: 65% → 100% 확대</td> </tr> </tbody> </table> ■ (신청기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진기요금 등 지원 	구분	내용	대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고민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등	재산·금융 기준 완화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확대: 65% → 100% 확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구분	내용							
대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고민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등							
재산·금융 기준 완화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확대: 65% → 100% 확대							
특별돌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내용)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 돌봄 쿠폰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 (내용) 4개월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대상자 개별 안내로 홍보 예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 (개신) 직후 참여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내용) 활동비 일부(30%)를 상용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소정(급여액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상품권 5만 9,000원을 추가 지급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등 이용 가능 → 상품권수령(민택지)						
건설일용근로자 무이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건설일용근로자 ■ (내용)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전국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신청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정포, 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정포 ■ (내용) 폐업정포 최대 300만 원, 휴업정포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정부세탁, 저출생증빙서류 등						
코로나19 폐업 정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특별재난지역 폐업 정포 ■ (내용) 철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한	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장가입자) 한월 실적·유직(소득상실)서류 + '소득감소' 사유로 인정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 범위 확대(한월 사업장, 3개월 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일 까지 신청 시 3·4·5월 분 신청 ■ 5월 기 납부분 5월 환급 ■ 5.15일 까지 신청 시 4·5·6월 분 신청 ①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 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 등) -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참조 	국민연금공단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사업장가입자)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유류), ☎063-713-5608, 5612)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3-5월분 적용 ■ 신청기한: ~7/10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청상우무 (sa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가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별업업자 신청 ■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돌봄 선택’



정경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침에 출근하면 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던 K선생님의 표정이 어둡다. “선생님? 아침부터 무슨 일 있었어요?”하고 묻자, “센터장님... 긴급보육 때문이에요...” K선생님은 만2살 된 영아를 키우는 센터 직원이다. K선생님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랑,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도 어렵고 남편과 선생님도 휴가를 다 쓴 상황이라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아이를 긴급보육하려고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더니, 원장님의 난처한 목소리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가 한명도 없는데... 지영이(가명)가 나온다고 하면 지영이(가명) 담임선생님이 나오셔야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K선생님은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일하는 엄마입장에서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하여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 지구촌 온 세상이 코로나(COVID-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잠시 종식 될 것처럼 보이더니 이번 달 초 갑자기 이태원에서 큰 건이 또 터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에 따라 긴급 보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말 기준, 충북도내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무려 46.4%까지 올라갔다. 월별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5일 11.7%에서 3월 16일 22.2%, 3월 30일 30.8%이더니 4월 13일 46.4%로 급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이 1천110개소, 전체 영유아 현원이 4만1천654명이며 이 중 1천여 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희망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

는 대다수의 연령층이 영아(만0~2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정에서의 영아의 돌봄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긴급보육으로 어린이집에 오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함께 준비하는 등 대다수의 보육교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으로 아이가 한명이나 두 명 정도만 나와도 평소와 동일한 원 운영을 해야 해서 준비할 게 많다. 아이를 위해 간식과 점심을 준비하고, 교사는 끊임없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날을 앞둔 시점에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점토나 놀이감등 어린이날 선물을 교사들이 함께 모여 정성껏 포장하고 차를 타고 ‘drive-through’처럼 아이들 가정마다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고 응원을 했다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물론 엄마들과 아이들은 작은 선물이지만 큰 감동을 받았으며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인 요

소도 많지만 영유아의 돌봄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다. ‘영아의 가정 내 주 양육자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학계 및 언론에서 강조를 하지만 ‘0~5세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밀리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업 맘들이 가정 내 양육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소소한 행복감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이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돌봄 선택’인지는 모른다. 부모들의 수요와 있고 꼭 긴급보육을 해야 한다면 마음 편히 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의 방역행동이 어려운 영유아들을 교사들에게만 맡기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내 아이의 건강은 부모인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와 함께 가정 내 좁은 실내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 신청이 없어 돌봄 영유아가 한명도 없다면 보육교직원들은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돌봄 영유아가 없어 코로나가 주는 특별휴가? 생각할 수 있으나 과연 어린이집의 설립취지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

‘코로나 블루’ 일상에서 마음면역 챙기기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모두들 무탈하고 안녕하신지 걱정이 앞서네요.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모임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혹은 ‘생활 속 방역과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규칙과 약속은 꼭 필요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코로나-블루’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특정 전염성 질병이 최악의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 선언을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나빠다 보니 어찌 보면 이 같은 우리의 조치와 약속이 당연한 일이나 이런 시기일수록 정신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코로나-19 노출을 체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에 확진자가 없다 해도 미디어나 주변 사람을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됩니다. 몇 달간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정신적 내인성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장기간 이어지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 되고 사소한 자극에도 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생기는 원인 중 또 하나는 운동, 사교적 만남, 종교나 사회생활 등의 일상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학교 등교 연기 등으로 가족들이 장기간 집안에서 머물면서 가정 내 공간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도 우울함의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등도 우울함의 원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더 심각해진다. 코로나 블루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

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종료시점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는 요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코로나 블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불안 감수성이 높거나 건강 염려증 경향이 있거나 외로움을 잘 느끼는 분이라면 코로나 블루에 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도 면역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신건강에 면역을 어떻게 키워? 하겠지만 신체건강에 면역을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외부나 헬스장이 아니어도 가정에서 운동을 하는 것 등이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들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현재 코로나 블루라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코로나 관련 정보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보도록 하고 너무 길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2회 가벼운 스트레칭 등 몸을 움직이세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타인과 적절한 거리 유지는 필수겠죠.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우리에게 피로회복이라는 멋진 선물을 선사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깨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성장 호르몬 때문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가정불화나 학대 소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심리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능한 서로 간섭 등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기피하며 정서적 연대가 파괴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과 동료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 시기, 유태인이나 집시가 패스트의 원인이라고 집단학살을 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집단을 소외시키고 있죠. 확진자에 대한 관심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위기들의 연속이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하는 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 때 하는 행동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연대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신종호

영실애육원 생활복지사

배우 김혜자씨가 오랜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구호활동을 하며 체험한 전쟁과 가난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전쟁과 가난 기아 속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입양 아동 현

황’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2019년까지 입양인 수는 국내 8만864명(32.5%), 국외 16만7천864명(67.5%) 등 총 24만8천728명 등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해외로 국내로 입양되고 있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복지시설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279개 시설에서 12,193명의 어린이들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변화로 국내입양 비율이 50%를 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원 가정을 지키고 시설보호등을 통해 주변에서 학대받고 방임되는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방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크고 작은 제98회 어린이날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이 더 쓸쓸한 시간을 보냈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상처받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학습을 위한 학습지원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지원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아동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 전 아동 지급 및 만 7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연령을 확대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 식상한 표현이지만 하지만 100번 들어도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물질만능의 시대로 변화가는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가난의 대물림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에 이 순간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사교육이 보편화 되어있는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학령기(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 만 6~12세)때부터 학습이 뒤쳐지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과연 그 아이들을 따라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며 학포자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연령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제공이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요?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의 인구 절벽 현실에서 태어난 미래의 희망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진학이나 자립의 시기가 왔을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완성 성장기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또 얼마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에 이 순간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hyra21@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

Q) 저는 임대인과 2018년 5월 1일 보증금 1억, 임차기간 2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임차기간 만료 1달 전인 2020년 3월 즈음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2020년 4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곳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A)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1달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0년 4월 30일에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임차

인은 임차목적물에서 이사를 나가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며 설사 추후 보증금을 지급하여 말소가 되어도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임대차등기 및 말소 내용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만약 임대차등기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연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복지정보 제공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사랑의열매&마중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043) 267-5835, 285-5835
- 참고: http://www.woorideul.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께 여는 자등문' 무료자등문 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https://www.bokji.net

[밀알복지재단] 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전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여송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따뜻한동행] 2020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모집 안내

- 지원대상: 분야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장애인 - 문화체육, IT&과학기술, 예술, 사회교육 분야 -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원품목 결정 ※ 단순 이동 목적의 수동 및 전통 휠체어 지원 제외
- 접수기간: 2020.3.10.(화) ~ 7.10.(금)
- 신청방법: -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www.walktogether.or.kr)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ddadong@walktogether.or.kr)

-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1937

[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대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이지웰가족복지재단] 제10회 가족사랑 수기공모전 안내

- 공모개요: 주제-가족사랑(사진에 얽힌 가족이야기, 부모 또는 형제와의 이야기, 가족과 함께했던 특별한 추억,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
- 공모부문: 사진과 수필 또는 수필(3,000자 이내)
- 공모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대학생 포함)
- 접수기간: 2020.5.1.(금)~6.30.(화)
- 접수방법: '이지웰가족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ezfamilywelfare.or.kr)'를 통해 직접 업로드
- 심사발표: 2020.7.13.(월)
- 시상식: 2020.8.(토) 예정
- 시상내역: 대상(각 100만원-2명), 최우수상(각 80만원-4명), 우수상(각 50만원-4명), 장려상(각 30만원-4명), 특별상(10만원 상당 상품권-8명)

자원 봉사자 모집

-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835-4288

-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845-4544

-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소망원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253-7763

- ▶ **영어, 수학 학습지도**
관리센터 :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273-5075

-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216-9811

- ▶ **지역아동 학습지도**
관리센터 : 누리꿈터 덕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643-4727

-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857-5960

-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284-0103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267-4590

-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 5.1 ~ 6.30
전화번호 :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 이하 다사랑회)는 지난 5월 18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상가 새로

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진행했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대상자분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기간 2020. 5. 4. (월) 09:00 ~
조회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생애주거지원금**
0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1.6회 2.7수 3.8목 4.9금 5.0토** 모두 (휴일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기간 ▶ 온라인 5.11.(월)~, 오프라인 5.18.(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① 로그인 ▶ ② 신청 ▶ ③ 지급(충전)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① 은행방문 ▶ ② 신청 ▶ ③ 지급(충전)

상품권, 선불카드도 받고 싶다면? 신청기간 ▶ 5.18.(월)~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 ② 신청 ▶ ③ 지정장소 방문 ▶ ④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① 읍면동 방문 ▶ ② 신청 ▶ ③ 지급 ※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5.18.(월)~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① 전화상담, 확인 ▶ ② 조회 ▶ ③ 방문, 접수 ▶ ④ 지급(상품권/선불카드)

기타 안내 사항

이의 신청 방법
신청기간 5.4.(월)~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② 증빙서류 제출 ▶ ③ 검토 후 의견 통보 ▶ ④ 지원금 신청 ※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지자체별 일부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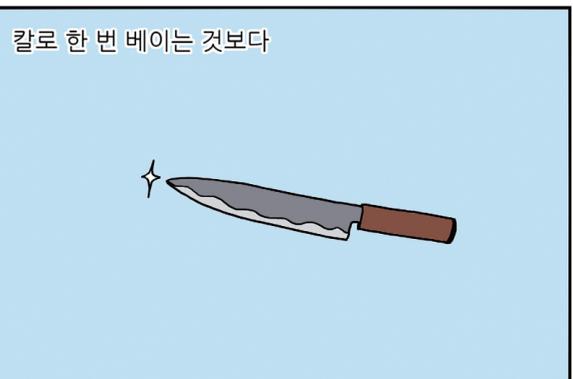
지원금 사용 안내

- 2020.8.31.까지 사용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 잔액은 환급 불가

복지/만/평

상처

이창신 www.bokmani.com



작은 말이 모여 큰 상처가 됩니다.